

고려시대 무술 훈련장소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산-8-71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서산
수령 637년
수고 30m
흉고둘레 8.3m



충남 서산시
석남동 510-2
36° 45' 50.04" N
126° 27' 51.36" E



남원마을에 있는 보호수(서산-8-71) 은행나무는 행정 구역상 서산시 석남동의 작은 밭 사이에 자란다. 은행 나무는 수나무이며, 나무나이는 637년이다. 나무높이는 30m, 가슴높이둘레는 830cm, 밑동둘레는 980cm 정도이다. 가지 길이는 동쪽으로 11.3m, 남동쪽으로 11.7m, 남서쪽으로 10.6m, 북동쪽으로 11m이다. 은행 나무는 활력이 좋지만 북서쪽의 상층부 잔가지가 부러져 있는 상태이다. 늘어진 가지를 지탱하는 지탱목이 있어서 보호되고 있다. 남동쪽 아래로 처진 가지는 받침대 2개가 지탱하고 있으며, 수관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정씨 문종과 관련이 있다. 정신보鄭臣保는 서산 정씨의 시조인데, 그는 송나라가 망하자 고려에 귀화하여 서산 지역에서 살았다. 은행나무는 그 당시에 심은 것이다. 서산의 위인으로 알려진 정인경鄭仁卿 장군은 정신보의 아들인데, 은행나무 아래에서 무술을 익혀 고종 말엽에 침입한 몽골군을 크게 물리치는 전공을 세웠다. 나라에서는 정인경의 공로를 높이 사서 일시 폐군시켰던 부성군을 서산군으로 개칭하여 복속해 주기도 하였다. 지금도 은행나무 아래의 바위에는 말발굽 자국이 있는데, 그때 말을 타고 훈련하던 흔적이라 전해진다. 또한 예로부터 그 바위나 은행나무를 훼손하면 재앙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7월 은행나무에 제사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각자의 소원 성취를 빌기도 하였다. 오래도록 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원줄기에 어린 사철나무, 쥐똥나무, 구기자나무 등이 개체수준으로 함께 자라고 있다.